

나오시마와 다카마쓰에서의 단 한번뿐인 기회 (直島と高松での一期一会)

The only one chance, in Naoshima & Takamatsu

글. 이형민 Lee, Hyung-Min ·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공간건축학부(설계전공) 3학년 재학중
2015한국건축문화대상 계획건축물부문 대상 수상

건축을 전공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답사’, ‘탐방’ 그리고 ‘여행’이라는 단어는 특별히 더 설레임과 기대감을 가져다 주는 단어라고 생각한다. 국내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직접 경험하면서 배울 수 있는 건축물의 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건축물을 사진 또는 영상으로 마주하게 된다. 이렇게 많은 건축물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건축을 전공하는 사람들에게 여행을 통해 직접 건축물을 경험하게 되는 일은 놓치고 싶지 않은 기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나오시마(Naoshima)와 다카마쓰(Takamatsu)로 가는 이번 ‘건축문화대상 해외건축탐방’ 또한 나에게 많은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다가왔다.

2015년 12월 15일 오후 12시 인천국제공항, 오동희 심사위원장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3박 4일 간의 일정을 함께하실 김진명 건축사님, 김진욱 교수님, 김보선 대한건축사협회 차장님 그리고 수상자들과의 공식적인 첫 만남이 짧은 소개와 인사말로 이루어졌다. 인천공항을 떠나기 전 여행의 시작을 기념하여 촬영한 첫 번째 사진을 보면 여행이 끝나갈 때 서로에게 가졌던 친밀감이 어떻게 이렇게 가까워 질 수 있었나 싶을 정도로 어색함이 묻어난다.



인천공항에서의 어색했던 첫 만남



나오시마의 상징과 같은 호박 조형물



SANAA 미야노우라 여객터미널



미야노우라 여객터미널의 지붕 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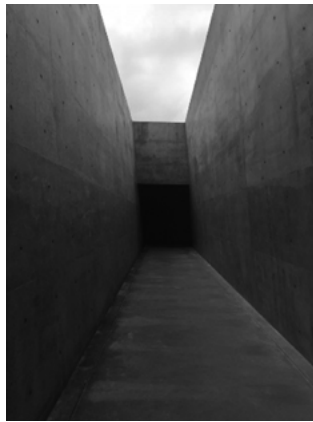
약 1시간 30분의 비행 시간 뒤 보슬비가 내리고 있는 다카마쓰 공항에 도착하여 숙소가 있는 시내까지 이동하는 동안 정신 없이 두리번거리며 돌아본 다카마쓰의 첫 모습은 생각보다 조용하고 수수하다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했다. 카가와현의 현청사가 있는 다카마쓰는 일본의 시코쿠 섬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인구가 약 42만명(2014년 기준)이 거주하고 있어 약 350만 정도의 인구수인 부산에 비교하면 조용하고 수수한 것이 이상하지 않다. 다카마쓰에 도착한 첫째 날은 이번 탐방에서 절반 이상의 힘을 쏟아야 할 둘째 날의 일정에 대한 설명과 준비의 시간으로 인해 식사 후 가벼운 미팅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했다.

본격적인 탐방이 시작될 다음날, 예술의 섬 나오시마로 들어가는 배를 타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움직여 다카마쓰항으로 향했다. 다카마쓰에서 약 50분 정도 소요되는 나오시마는 여의도와 비슷한 면적(약 8.13km²)으로 일본의 지중해라고 불리는 일본 중남부의 세토나이카이(Setonaikai) 해상국립공원에 위치한 섬이다. 이곳은 원래 중공업단지가 있던 곳으로 구리 제련소가 오랫동안 있던 곳인데, 제철업이 쇠퇴하면서 마을이 산업폐기물과 오염으로 망가져갔고 사람들 역시 이곳을 다 떠나게 된다. 그 무렵 건축사 ‘안도 다다오 Ando Tadao’는 출판업으로 시작해 다양한 분야로 확장을 통해 큰 성장 이루었던 ‘베네세(Benesse) 그룹’과 함께 ‘나오시마 아트사이트(Naoshima Art Site)’라는 계획으로 이곳을 현대미술과 자연이 어우러진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시켜, 지금은 약 3,6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여행전문지 ‘트래블러(Traveler)’에서 ‘죽기 전에 가보고 싶은 세계 7대 명소’ 중 하나로 선정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섬이 되었다.

나오시마의 미야노우라(Miyanoura) 항구에 도착하면 얇고 평평한 지붕으로 덮인 여객터미널이 바로 눈에 들어온다. ‘바다의 역(The marine station)’이라 이름 붙여진 이 여객터미널은 ‘SANAA’ 건축사사무소에서 디자인하여 2006년 완공되었는데, 장변과 단변이 각 70m와 52m인 얇은 판 아래 얇은 하얀 강철 기둥이 지지하고 있고 지붕 아래의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곳은 대기실, 카페, 기념품 상점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평평하고 넓은 지붕 아래



지중정원의 초화



지중미술관의 외부 통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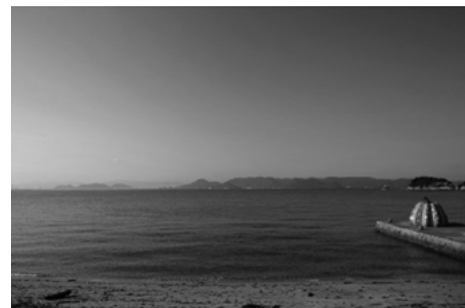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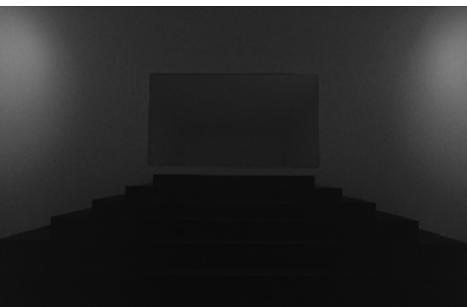
클로드 모네 (출처:Openbuildings)

유리벽 그리고 하얗고 가는 기둥으로 이루어진 여객터미널은 아름다운 바다 풍경으로 환하게 열려있고 낮고 소박한 미야노우라항 주변과 잘 어우러진 모습이었다.

미야노우라항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처음 이동한 곳은 ‘땅 속의 미술관’이라는 의미를 가진 ‘지중(地中)미술관Chichu Museum’이다. 2004년 완공된 지중미술관은 나오시마 아트 프로젝트의 큰 세가지 프로젝트 중 하나로, 땅 아래 지하 3층으로 나뉘어진 이곳에 ‘클로드 모네(Claude Monet)’와 ‘월터 드 마리아(Walter De Maria)’ 그리고 ‘제임스 터렐(James Turrell)’의 작품을 담고 있는 안도 다다오의 작품이다. 마을버스에서 내려 작은 안내센터에서 전시 관련 주의사항을 듣고 난 뒤 미술관 입구를 향해 걸어 올라가게 되는데, 오르막길의 왼쪽 편으로 모네가 스스로 조경을 했다고 하는 지베르니 정원의 꽃을 조사하여 선정한 초화들과 나무들이 있는 ‘지중정원(Chichu Garden)’이 있다. 나중에 전시관람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마주했을 때 희미하게 클로드 모네의 작품이 떠올랐던 것을 생각하면 꽃들과 나무들의 화려한 색이 한창인 봄에 이곳을 다시 와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만큼 작지만 의미 있는 정원이라 생각된다.

지중정원을 지나 대각선으로 난 입구로 들어가서 통로를 따라가면 지하 2층에 위치한 정사각형의 녹색 정원에 들어선다. 처음 나와 마주한 건축사 안도 다다오의 작품에 대한 첫 인상은 기대 이상으로 놀라웠다. 일본을 떠나기 전 사전 조사 당시에 이곳 녹색 정원이 보이는 사진을 봤지만 그때 직접 이곳에서 느낀 감정이 단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직접 몸으로 느낀 공간감뿐만 아니라 섬세함이 묻어나는 마감, 조명 그리고 세부적인 디테일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 처음 느꼈던 놀라움은 내부를 돌아 다니는 내내 계속 되었는데, 하늘을 향해 열려 있는 긴 실외 통로, 가장 중심이 되는 삼각형 모양의 중정(中庭) 그리고 관람하는

동안 적절하게 변화되어 들어왔던 자연광 등 건축사의 의도가 담긴 모든 것들에 감탄했다. 지중미술관의 관람 동안 많은 것들에 대해 놀랐지만, 그 중에서도 함께 관람했던 주변 사람들이 꼭 한번씩은 더 언급했던 클로드 모네의 작품이 전시된 곳은 한동안 눈앞에서 잊혀지지 않을 만큼 강한 인상을 주었다. 눈으로 보기에 높이 7m에 한 변의 길이가 약 11m 정도 되는 정사각형의 하얀 전시관에 들어서자 다른 전시관과 달랐던 온도와 습도 그리고 자연광의 밝기까지 전시관의 환경은 내 눈 앞에 정면으로 걸려있는 모네의 <수련의 늪(Water-Lil Pond)>을 신비롭게 다가오도록 했다. 이 전시공간에서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정사각형의 각 모서리가 둥글게 되어 있는 것이었는데, 관람 후에 알아본 내용으로 짐작해보면 그곳에 있는 모네의 작품들이 연속화면과 같이 작품이 하나로 이어지고 중간에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점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들어왔던 것은 바닥에 타일처럼 깔려 있는 조그만 대리석 조각들이었다. 바닥에 있는 70만개의 2cm²의 타일들은 위에서 간접적으로 실내에 들어오는 자연광을 다시 작품에 반사해 작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을 알고, 이 전시관이 완성되기 전까지 세세한 부분들이 현장에서 수정되고 중간 중간에 재료가 결정되기도 했다는 그 과정에 대해 한번 상상해 보게 되는 순간이었다.



위 좌측부터 차례로:제임스 터렐의 오픈필드, 월터 드 마리아의 타임/타임리스/노타임, 베네세 하우스 외부 전시장(출처:NaoshimaArtSite)
아래 좌측부터 차례로:이우환 미술관 외부 전시장, 이우환 미술관을 배경으로, 베네세 하우스 앞의 그림과 같은 풍경

클로드 모네의 작품 이외에도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강렬한 인상을 주었던 제임스 터렐의 ‘오픈 필드(Open Field)’ 작품 전시관에서는 그 공간이 주는 신비로움을 온 몸으로 느끼고자 방안에 들어갔었던 사람들 모두 다 같이 한참 동안 누워있기도 했다. 그리고 월터 드 마리아의 ‘타임/타임리스/노타임(Time/Timeless/No Time)’은 큰 계단식 전시관이었는데, 거대한 검정색 화장암 구를 놓고 그 주위에 금색 나무조각 27개가 전시되어 있었다. 월터 드 마리아의 전시관은 다른 두 개의 전시들 보다는 큰 충격을 주지 못했지만 그 공간만큼은 계속 오르락 내리락 했을 만큼 그 나름의 매력을 가지고 있었다.

한 순간 한 순간을 모두 담아가고 싶을 정도로 흥미진진했던 지중미술관을 다음으로 안도 다다오와 가깝게 지냈던 예술가 ‘이우환(Lee Ufan)’의 작품만을 위한 ‘이우환미술관(LeeUfan Museum)’으로 이동했다. 사실 이우환 미술관은 부산 시립미술관 옆에 위치한 ‘이우환공간(Space LeeUfan)’을 다녀온 경험도 있고 2015년에 이우환 선생님의 작품을 전시한 행사를 많이 접한 경험이 있어 작품에 대해 조금은 알고 있었다. 이우환 선생님의 작품은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보다 신체와 감성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을 포함해 작품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잘 전달 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했던 안도 다다오의 노력이 담긴 지중미술관을 봤기 때문에 이곳 나오시마의 이우환 미술관 역시 기대하고 회화작품과 설치작품을 만났지만, 이전에 작품을 마주했을 때와 같이 이곳에서도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 마음처럼 되지 않아 이곳에서 많은 아쉬움만 남기고 왔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다 같이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다 보니 모두 허기졌는데, 마침 다음 장소인 ‘베네세 하우스(Benesse House)’에서 점심을 해결할 수 있었다. 베네세 하우스의 본관인 미술관의 지상 2층으로 가면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식사를 할 수 있는 작은 카페 겸 레스토랑이 있는데, 내려다보이는 바다를 앞에 두고 음식을 먹어서 인지 눈도 즐겁고 입도 즐거울 수 있어 혼자만 경험하기 아쉬울 정도로 주변에 나오시마를 방문하는 사람이 있다면 꼭 한번 이곳에서의 식사를 추천해주고 싶다. 그림 같은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베네세 하우스는 숙박이 주요 시설인 ‘파크(Park)’, ‘비치(Beach)’와 미술관이 주된 프로그램인 ‘뮤지엄(Museum)’ 그리고 본관인 미술관에서 모노레일을 타고 언덕으로 올라가야 들어갈 수 있는 숙박시설인 ‘오발(Oval)’ 이렇게 4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곳은 내부 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다양한 작품들이 설치되어 있는 나오시마의 상징 같은 장소이다. 기억에 남는 식사를 마치고 다시 기운 내서 미술관 이곳 저곳을 바쁘게 돌아다녔는데, 이곳에는 ‘브루스 나우만(Bruce Nauman)’, ‘스기모토 히로시(Sugimoto Hiroshi)’ 그리고 ‘야스다 칸(Yasuda Kan)’ 등을 포함한 약 44점의 유명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미술관을 한참 관람하면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나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채 미술관 내부를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곳 저곳 다니고 있는 전시 관람 동선의 흐름이었다. 미술관의 내부와 외

부를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감상하게 되는 관람 동선은 미술관의 작품뿐만 아니라 주변 나오시마 풍경과 함께 어우러져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을 알게 되면서 또 하나 배우고 가는 소중한 경험을 주었다.

나오시마에서 미술관 못지 않게 인상적인 것이 있었다면 나오시마의 마지막 일정이기도 한 혼무라 지역의 '아트하우스 프로젝트(Art House Project)'이다. 이 곳은 3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버려진 섬이었지만 주민들의 협조, 여러 작가들이 함께 참여해 오래된 전통 가옥을 개조하면서 미술관으로 재탄생한 곳이다. 아트하우스 프로젝트에는 여러 작품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이 깊었던 작품은 안도 다다오와 제임스 터렐의 합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미나미 데라(Minami Dera)'이다. 이곳은 어떤 작은 불빛 하나도 허용이 되지 않고 방의 입구에서부터 앞 사람과 손의 감각에 의존하여 암흑 속의 방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 속에서 꽤 오랜 시간 침묵하고 인내하면 희미한 빛의 평면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곳에서는 평소 생활하면서 너무나 많은 자극을 받고 있는 시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기회를 주었으며 그 곳을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는 절대 알 수 없는 충격을 경험할 수 있었다. 아트하우스 프로젝트가 끝나고 알 수 있었던 것은 나오시마가 명소가 되는 과정에서 미술관도 큰 역할을 했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협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다. 이에 프로젝트는 마치 보물 찾기를 하듯 지도를 따라 작품을 찾아가면서 친절하게 설명 해 주었던 그곳 앞집, 옆집 주민들의 따뜻함으로 기억남아 있다.

모든 것을 나오시마에 쏟아 붓고 난 뒤에 그날 있었던 많은 일들을 끝맛 같았던 저녁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둠이 빨리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 모든 시간을 사용해도 끝내지 못할 만큼 어마 어마한 양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주고 받으며 여행의 둘째 날을 마무리 했다.

다음날 아침, 하루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든 나오시마를 떠나는 아쉬움을 뒤로 하고 다시 다카마쓰로 돌아오는 배에 올랐다. 다카마쓰로 향하는 배에서 미리 조사했던 자료들을 꺼내보며 나오시마에서 있었던 생각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안도 다다오의 작품을 보면서 느꼈던 것들이지만, 모든 건축사들이 작품에서 얼마나 더 섬세하게 신경을

나오시마 혼무라 지역의 거리



나오시마 해변을 배경으로



아트하우스 프로젝트 중 미나미 데라





리쓰린 공원



단계 겐조의 카가와 현청사 외부



단계 겐조의 카가와 현청사 내부

쓰고 주어진 장소와 관련한 모든 것에 대해 얼마나 더 이해하려 고민하고 노력했는지는 클로드 모네 전시관에서 느꼈던 것처럼 그곳을 마주하는 순간 바로 알 수 있었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정리해보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것들과 같이 한번 더 생각할수록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몸으로 배울 수 있었던 나오시마였다.

오전 일정으로 ‘마루카메 겐이치로 이노쿠마 현대 미술관(MIMOCA)’이 있었지만 미술관 사정으로 개방을 하지 않아 간단하게 외관만 둘러보기로 하고 다음으로 이동했다. 다카마쓰가 위치한 카가와현은 우동현이라 불릴 만큼 우동의 소비량도 많고 관광상품으로 ‘우동 투어’가 있을 정도이다. 다카마쓰에 방문한 우리는 우동 맛을 보지 않고 갈 수 없어 그곳에서도 아주 유명한 맛집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이동한 곳은 일본 특별명승지(경관이 뛰어나 이름난 곳)로 지정된 정원 문화재중 최대 면적을 자랑하는 ‘리쓰린 공원(Ritsurin Kouen)’이었다. 시운산을 배경으로 6개의 연못과 13개의 인공 산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는데, 4백 년 가까운 역사를 지닌 애도 초기의 정원으로 한걸음 걸을 때마다 다른 경치가 보인다는 ‘일보일경’이라 불릴 만큼 변화무쌍한 아름다움을 자아낸다. 정원을 천천히 돌아보는 동안은 실 틈 없는 생활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였던 마음들이 세월이 깃든 나무와 바람의 정취로 치유되는 시간이었다.

정원에서 치유한 산뜻한 몸과 마음으로 향한 곳은 ‘단계 겐조(Tange Kenzo)’가 설계한 ‘카가와 현 청사(Kagawa Prefectural Government Office)’이다. 단계 겐조는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일본 건축사로 국제주의 양식을 일본의 전통적인 건축과 결합하려고 노력하였다고 한다. 카가와 현 청사는 단계 겐조의 초기 작품이며 걸작으로 평받는 건축물 중 하나로, 본관은 1958년 준공되었고 그 바로 옆에 지어진 신 카가와 현 청사는 2000년에 준공되었다. 눈앞에서 직접 본 카가와 현 청사는 세련된 모습도 보이는 반면 어딘가 모르게 일본의 색깔이 묻어 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심사위원들께서 하셨



いちごいちえ, 2015.12.15 - 12.18

던 말들 중에 건축물의 구조와 전체적인 모습에 대해 ‘명쾌한 건축물이다’고 한 말이 인상 깊었으며 지나고 사진을 볼 때마다 계속해서 생각이 난다.

그 뒤로 다카마쓰의 관광 명소들을 둘러보고 난 뒤 서서히 여행의 셋째 날에 있던 탐방의 마지막 일정이 종료되자 그때서야 마주하기 싫었던 작별의 시간을 실감하게 되었다. 다음 날은 모두가 각자 위치한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일만 남았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날의 밤을 쉽게 떠나 보낼 수가 없어 쉽게 잠에 들지 못했다. 이번 여행 중에 가이드 분이 해주셨던 말이 있었는데, ‘이치고 이치에 いちご いちえ’(일기일회-一期一会 - 일생에 한번 뿐인 인연. 즉, 사람을 만나면 단 한번의 인연이라 여기고 정성을 다하라) 이 말이 일정의 끝이 점점 보일수록 머리 속에 떠나지 않고 맴돌았고 여행이 끝난 지금도 보관하고 있는 사진들을 볼 때마다 떠오르곤 한다. 3박 4일을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과 나오시마 그리고 다카마쓰로 떠난 이번 여행은 일생에 한번 뿐이라는 것을 알기에 이렇게 기행문을 작성하는 작업이 뜻 깊을 수 있었다.

너무도 즐거웠기 때문에 짧게만 느껴졌던 3박 4일 동안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려고 신경 써 주시고 도움이 되는 말씀을 아끼지 않으셨던 오동희 심사위원장님, 김진명 건축사님, 김진욱 교수님 그리고 김보선 차장님께 이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여행 동안 최대한 많은 것을 보여주려 하고 일정이 끝나는 순간까지 사고 없이 여행을 마무리 할 수 있게 해주신 김재희 가이드님에게도 감사의 마음 잊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천공항에서 작별 인사하기 전까지 너무나 아쉬움이 남을 수 밖에 없도록 많은 추억 만들어준 사람들 주석이형, 해수형, 준모형, 슬기, 효은이 그리고 정미까지 너무 고맙다는 말하고 싶고 모두에게 특별한 인연이었던 만큼 계속해서 인연이 이어져 갈 수 있었으면 한다.